

당나귀와 함께하는 건강한 제2의 인생



나 영 진
산너머 강촌 대표

산 넘어 강촌에 봄이 왔습니다.

산 넘어 강촌에 봄이 왔습니다.
금년 봄은 잠꾸러기입니다.
그렇게도 꽃샘추위를 하더니
뒷산에 이름 모를 풀들이 파릇파릇...
진달래도 곱게 피었습니다.
당나귀들도 좋아서 털갈이를 합니다.
영산강 물색도 봄 색입니다.
자라들도 겨울잠에서 깨어났습니다.
넉넉한 제 아내는 앞마당 빨랫줄에
황토 빛으로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.
산 너머 강촌에 찾아온 손님
이 아름다운 봄!
당나귀도... 자라도... 아내도... 저도...
산 너머 강촌 식구들은 봄맞이 준비에 분주
합니다.

귀농을 위한 준비

산 너머 강촌은 우리농장 이름입니다. 아직
간판을 못 달았습니다.

전남 무안군 일로읍에서 영산강변 쪽으로
10여분 오면 조그만 매봉산이 있습니다. 산
위에서 바라보면 영산강이 흐릅니다. 계곡엔
자라양식장 하우스 2동 500평이 있고 영산

강변엔 당나귀 30마리 사육장이 자리하고 있
습니다.

이 땅은 18년 전에 준비하였습니다. 민주화
운동이 한창이던 그 시절 저는 회사에서 해고
를 당하면서 앞날을 걱정, 농촌으로 돌아가겠
다고 결심 끝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.

먼저 틈나는 데로 교육을 받기로 하였습니
다. 제일 먼저 충북농협연수원에서 개최한 특
수가축교육을 받았습니다.

직장에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작목

자라를 키우기 시작하다

자라는 잡식성 파충류입니다. 생명력이
강합니다. 자라하면 보양식으로 먼저 생각
됩니다.

자라양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라 키
우는 곳을 찾아 시간 나는 데로 키우는 법을
배웠습니다. 5개월 정도 겨울잠(동면)을 자고
따뜻한 계절에는 먹이를 먹고 산란을 하며 모
래 속에서 새끼가 부화된다는 사실을 알았습
니다.

제가 키우는 방법은 다른 양식장과 조금은
다릅니다. 운영비(사료, 연료, 전기료)를 최소
화한 방법입니다. 어미자라는 동면을 원칙으
로 하고 있습니다. 수입자라와 차별화하기 위

해서입니다. 부화방법도 42, 45일에서 52, 55일로 연장했습니다. 새끼가 더 건강하기 때문입니다.

우리나라 여러 곳에 자라양식장이 있습니다. 작년 말라카이트그린 파동 때 저희 자라는 불검출 판정을 받았습니다.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라를 키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

희망퇴직을 하다



저는 목포 MBC 광고사업 국장을 지냈습니다. 그 자리가 그렇습니다. 잦은 술자리(광고주와의 만남)와 각종 행사(지역축제, 이벤트)를 위한 출장,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. 당뇨, 고혈압, 지방간, 고지혈증,

비만 등 제가 가지고 있는 병명이었습니다. 무서웠습니다. 걷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.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어 날마다 퇴근 후 이리다 죽겠구나. 내 나이 55살에... 가족들과 상의했습니다.

병원으로 가느니 차라리 농장으로 가자고... 저는 이렇게 건강해 졌습니다.

당나귀를 키우다

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모란각 만찬장에서 당나귀 고기를 먹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.

북한에서는 “하늘소”라고 부른답니다. 김일성 위원장이 건강식으로 먹었던 고기랍니다. 김정일 위원장이 하늘에서 내린 고기라고 하여 “하늘소”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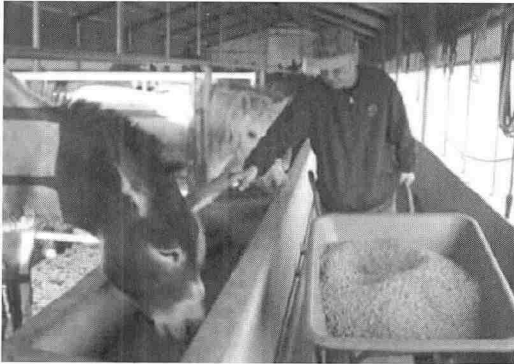
중국속담에 “하늘에 용고가. 땅에는 나귀고기” “당나귀 고기를 먹어 본 사람은 끌고는 못 간다.”

우리 동요에 “아버지는 나귀타고 장에 가고 어머니는 건너 마을 아저씨 댁에...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.

- 당나귀는 온순합니다.
- 적게 먹고(소의 약 3분의 1) 배설양도 매우 적습니다.
- 질병도 거의 없습니다.
- 사슴, 노루, 나귀는 쓸개가 없습니다.
- 사람을 잘 따릅니다.

10마리가 30마리가 되어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. 참 고마운 녀석들입니다. 이 녀석들이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었습니다.

아내는 천연염색을 시작하다.



제 아내 한귀순은 방송국 성우를 30여년 했 습니다. 같은 직장에서 함께하다 저를 위해 농 촌으로 들어왔습니다. 농촌에 적응하기가 많 이 힘들었습니다.

그러던 중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는 천연 염색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아내는 참 좋아했습니다.

지금 제 아내는 황토 염색에 열중입니다. 처음 제 양말을 황토 염색해 주었습니다. 신어 보았더니 무좀이 낳았습니다. 우리 집에 오신 손님들에게, 친지들에게 선물로 주었더니 좋 다는 것입니다.

지금은 속옷과 이불도 염색하여 저렴한 가 격으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. 중요한 사실은

제 아내에게 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. 너무 즐거워합니다.

이 기회에 무안군 농촌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.

퇴직자 은퇴자 여러분!

그림 같은 전원주택보다는 비바람 막아주 고 등 따뜻하게 해 줄 편안한 집 괜찮지 않겠 습니까?

넓은 농경지는 힘에 겹칩니다. 내 힘에 걸 맞는 경작지, 너무 많은 투자는 무리입니다. 돈을 벌겠다는 욕심도 무리입니다. 천천히 일 과 친숙해지고 이웃과 함께하고 내가 사는 땅 과 자연과 어우러졌을 때... 같이 할 때... 건강 한 삶은, 살맛나는 제2의 인생은 시작되리라 믿습니다.

여러분! 새로운 제2의 인생 농촌에 있습니 다. 농촌에서 희망을 이야기 합시다. ☺



▲ 당나귀와 함께하는 건강한 제2의 인생을 주제로 발표 하 는 산너머강촌 나영진 대표

〈2006년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... (II) 심포지엄 사례발표 자료게재〉